

“하도급자 선정 왜 발주기관이 강요하나”

도내 건설업체가 발주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지역 건설업 보호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인철 신임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4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에 참석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자 선정을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의 하도급계약을 강요해 원도급자의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시·군의 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도의 적절한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사용 자재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건설공사를 물품 구매로 발주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시공·설치가 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서 불합리한 관행 개선 요구 봇물



◇2015 상반기 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가 24일 도청에서 열렸다.

요한 사업은 반드시 건설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봉찬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관리 시

스템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공사대금 체납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도 적용이 발

주처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부정행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용되도록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를 제고, 건설자재 구매 촉진,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도를 비롯한 기관·단체별로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발표했다.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업도 메르스 확산 우려와 기동으로 발주량이 줄어들고 수주액도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 건설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faw4939@

“올림픽공사 지역업체 수주 확대 성과”

이임하는 정동기 도건설 협회장

25일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사진)은 “도내 건설업이 힘든 시기에 도 회장을 맡아 보람 있었던 일도,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소회했다.

정 회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발주가 지역 건설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업체 우대 방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댔다”며 “특히 그동안 262억원 미만 공사에만 해당되



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모든 공사에도 적용되도록 지방계약법을 개정하는 데 힘이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기 동안 국내외 경제침체로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점점 줄어든 것에 대한 미망한 대응방안이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일반 회원으로 돌아가 건설협회 도회가 발전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위윤기자

47년 전 꿈 많던 한 소년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된다. 과거 교과서에서 배운 반공소년 이승복을 말하고자 한다. 무장공비에 잔혹하게 살해됐고, 그 이유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고 했던 것이라니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이승복이란 인물을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이승복이란 소년을 다시금 상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데올로기 싸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잊혀져 가고 버려지는 듯한 우리의 작은 영웅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이다.

1959년 12월9일 계방산 기슭의 목골재 아래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난 이승복은 1968년 11월2일 삼척 울진지방에 침투한 무장공비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항거한 반공 어린이이다. 그 넋을 달래고 반공의 교육장이 되도록 그의 모교를 중심으로 1982년 10월26일 성역화한 곳이 있다. 바로 이승복기념관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관리 주체가 강원도교육청에서 평창교육지원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관리자가 누가 되든 관리만 잘되면 되겠지만, 관리 주체 여하에 따라 예산이 수립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승복기념관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최근에서

강원포럼

박용성 민주평통 강원부위원장



야 세워졌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부족한 인프라는 갖추고 다듬고 새로 만들면 된다. 고쳐야 한다면 기존 것은 헐고 새로 조성하면 된다. 그러나 그 정신은 다시 세운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면에서 이승복 정신이 자꾸만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강원대 교수 한 분이 평창세계평화축마파크 조성을 위한 ‘평창세계평화축전’

이승복을 평화의 아이콘으로

을 평창군에 제안했다. 이승복을 오늘날 다시 상기하면서 반공소년에서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아픈 역사를 강조하는 다크투어리즘의 틀에서 벗어나 평화를 지향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지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용서와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을 담고 있다.

이승복기념관으로 대표되는 다크 이미지를 벗어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관의 관점을 되찾아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조망하는 국

제적인 평화축제의 공간으로 그 목적을 구현할 대체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제 평창은 올림픽 호스트 시티라는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화의 성지로 거듭나

야 한다. 그 중심에 이승복 아이템이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이승복은 더 이상 슬픔을,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평화를, 희망을, 화합을 의미하는 아이콘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이승복기념관을 평화의 성지로 만드는 작업에 평창군,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올림픽 개최 시점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건설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덧붙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다시 보살피고 위로했으면 한다. 그 역시 우리 역사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했다. 돌고 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고 향해야 한다. 이승복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분단의 아픔을 지닌 대한민국의 현주소일 수 있다. 또 미래 평화통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부디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강원도와 협력사업 모색할 것”

인터뷰 박용성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부의장

“평화통일 기반 구축 선도적 역할 최선을”

박용성(6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신임 부의장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강원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부의장에 새로 임명된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강원도가 유일한 분단 도이고,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논의 진행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북강원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매칭 사업 등에 큰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장으로서의 경험을 어떻게 연결시킬 계획인가.

“건설협회 도 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쌓아온 인맥을 활용, 18개 시·군 전역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실행가능한 계획과 통일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서는 폭넓은 지역과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 조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이에 발맞춘 활동 계획은.

“강원지역회의도 남북관계의 기본은 ‘신뢰’라는 원칙 아래 운영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북방경제권으로 진출할 강원도 발전을 앞당기고 금



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강원도 최대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구체적 사업을 발굴, 평화기치 전파와 통일안보 의식 확산 등에 기여해 나가겠다”

김여진 beatle@kado.net

◇민평통자문회의 강원도 시·군 회장단

△춘천 이돈균(68) 파레스뷰 페 대표·유임 수원주 이옥주

(69·여) 전 원주시의원·유임 △강릉 김화목(58) 삼양산업개발 대표 △동해 김홍수(58) 월드상가대표 △태백 신원철(54) 태백철물상사 대표 △속초 장세호(69) 속초시행정동우회장 △삼척 김무호(62) 현대산업 대표 △홍천 양태호(61) 즐거운정원 노인요양원 대표 △횡성 조원웅(63) 전 횡성부군수·유임 △영월 김유영(60·여) 영월문화원 이사 △평창 김영해(58) 전 평창군의회 의장 △정선 심응중(58) 정선군의원 △철원 현대섭(69) 철원군생활체육회장·유임 △화천 주종화(56) 화천문화원 이사 △양구 김명호(70) 현대운수 사장 △인제 김대현(59) 전국축산업협동조합장협의회장·유임 △고성 황병구(67) 고성문화원 부원장 △양양 김현수(62) 현산장학회 이사

“올 국내건설 수주액 2007년 이후 최대치 될 것”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민간주력경기 회복에 힘입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공부문은 올해 SOC 예산이 늘었지만 반기 집행이 저조했고 추경 편성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하반기 수주증가가 예상된다.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 허명수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년 하반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를 계

한전협, 121조2000억 전망... 지난해보다 12.8% 증가 상반기 재정집행 저조로 하반기 공공물량 늘어날 듯

회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승민 NH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 규모를 작년보다 12.8% 증가한 121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2007년 127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2013년 91조3000억원까지 추락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내년 올해 전망치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는 이 같은 전망의 이유로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탄 민간주력경기 실적 증가를 지목했다.

국내 건설수주가 상반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 둔화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수주에 대한 하반기 전망은 밝게 봤다.

강 선임연구원은 “올해 SOC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상반기 집행률이 낮은 편이어서 올해는 상반기 기준 배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이 편성되면 이 가운데 SOC 예산은 10% 정도여서 이 경우 올해 SOC 예산은 26조3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2016년부터는 SOC 예산이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건설수주에 대해서는 중동지역 발주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16.4% 줄어든 552억달러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중남미 등 수주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2015년 하반기 건설경영전략 수립의 주요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주력 부동산 시장에서의 성과가 건설기업의 경영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 주택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지역별 차별화와 재건축 수주경쟁 심화,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 거시경제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경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형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응해 건설기업은 시장 ‘선택 전략’과 ‘추종 전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뉴스테이, 리츠부지와 민자사업 활성화, 해외건설 지원, 시설물 안전 강화 등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따라잡지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시장에 대해서는 유가 변화와 중동 시장 상황을 관찰하면서 기존 수주공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책 확대를 신시장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대형화 및 투자요구 증대에 대응해 외국기업이나 금융 등 다양한 전략적 제휴로 수주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